

관광분야 연구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탐색적 분석 및 제언

- 2007-2011년 『관광학연구』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Critique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ourism Sciences
during 2007-2011 Period

차 석 빈*

Cha, Suk-Bin

ABSTRACT

Although scholars have been increasingly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in Tourism since the end of 1990s in Korea, discussions on research methodology of qualitative studies have been r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used in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Tourism Sciences from 1997-2011. Thirty eight published articles using interviews and observation as main data collection methods were identified for analysis. Six categories such as description of research participants, sampling method, criteria and reason of participants selection, participants' consent, data collection method, data analysis method, and trustworthiness of data were analyzed. Findings from the research imply that there leaves room for improvement in each of the above six categories; especially as it pertains to participants' consent and the trustworthiness of the data. For the improvement of future qualitative research in the tourism field, the study concludes with implications of research findings related to the points of researchers, schools, and research societies, respectively.

핵심용어(Key words) :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관광학연구(Journal of tourism sciences),
연구방법(Research method)

I. 서 론

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은 성격상 크게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두 가지로 분류된다(김사현, 2007). 즉, 과학주의를 앞세운 양적 연구는 사회현상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과학주의 내지는 경험실증주의 입장을, 질적 연구는 인간 사회의 내면적 주관적 가치를 파악함을 목표로 삼은 현상학적 인식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분야에서의 연구는 대부분 양적 연구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김사현(2007)의 관광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 분석결과, 1996-2006년 사이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이론 및 문헌연구는 10% 이내, 사례 연구 및 내용분석, 2차 자료 및 기타 방법이 10%내외로 머물고 있다는 결과는 관광분야에서의 양적 연구가 대세인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 연구가 대세인 관광분야 연구의 흐름에 대한 비판(김사현, 2007; 김철원·윤혜진, 2009; 한범수·김사현, 1999; Phillimore & Goodson, 2004; Riley & Love, 2000)이 거세지면서 한국관광학회가 2007년 2월 처음으로 '질적 연구 특별논단'을 『관광학연구』에 발간한 이래 2008년부터 매년 12월호에 질적 연구논문을 특집호로 발간하고 있다. 이후 브랜드(김철원·김연선, 2007; 김철원·이태숙, 2007; 정란수·최인호·송영민, 2008), 여가(김미옥·김민주, 2011; 이훈·황희정, 2009), 경험(손해경, 2011; 송영민, 2010), 정보(김길래·김충영, 2007; 황수영, 2009; 황수영·김성혁, 2008), 만족(류시영·엄서호, 2008), 가이드의 일과 삶(이진형, 2008), 관광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의 고찰(김철원·윤혜진, 2009) 등 다양한 주제의 질적 연구들이 관광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관찰, 분석 및 깊이 있는 해석을 시도하는 연구방법으로 현상의 체계를 단순화하거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개방적인 상태에서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는 심층적이고 풍부한 사실 발견이 가능하며, 조사 설계 및 자료수집에 있어 융통성이 있으며, 작은 표본으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비록 질적 연구가 주관적이며, 조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위와 같은 장점으로 연구자가 연구를 함에 있어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와 훌륭한 동반관계를 이루고 있다(Creswell, 1998).

그러나 최근 관광분야 연구에서 질적 연구들이 주로 자료수집 방법에만 관심을

두고 자료분석에는 소홀하다는 지적(Mehmetoglu & Altinay, 2006)과 함께 질적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연구들(Jennings & Junek, 2007; Weed, 2000)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조용환(2002)은 질적 분석의 문제점으로 첫째, 연구자들이 자료의 수집방법에 대해 장황하게 논의하는데 비해 수집한 자료의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둘째, 질적 분석이 연구자 개개인의 경험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방법상의 체계와 표준을 결여하고 있으며, 셋째, 그 결과 질적 연구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심각한 문제들이 야기되고, 특히 초심자들이 질적 연구방법을 학습하는데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Creswell(1998)은 좋은 질적 연구의 특성으로 엄격한 자료수집 절차, 연구를 위한 질적 접근의 가정들과 특성들 내에서 연구의 틀 규정(설계의 전개, 여러 가지 진실의 제시, 자료수집 도구로서의 연구자, 참여자의 관점에 대한 초점) 등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질적 연구를 함에 있어 연구자들의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관광분야에서 수행된 질적 연구들은 연구 과정이나 절차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연구방법론의 문제점들을 검토내지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과연 질적 연구방법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혹은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가, 표준화된 체계가 꼭 필요한가 혹은 표준화된 체계를 제시한다는 것이 무리는 아닌지 등의 연구자들의 고민과 질적 연구를 양적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수행할 수 있다는 연구자들의 안이한 생각이 질적 연구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적게 가지게 했을 수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현재 관광분야의 질적 연구가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가고 있는 즈음에 국내 질적 연구과정이 과연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하는 물음에 대한 분석은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Howe & Eisenhardt(1990)는 질적 연구에 대해서 오직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표준만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질적 연구의 속성으로 볼 때 관광분야에서 통용될 수 있는 체계화된 연구방법론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관광분야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질적 연구들의 방법론을 검토해보는 작업은 향후 관광분야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개선된 방법을 모색하고 나아가 질적 연구의 방법론적 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관광분야 중 대부분의 질적 연구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한국관광학회 학술지인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질적 연구의 방법론을 분석하여 방법상의 오류를 찾아내고, 보다 엄격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

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론에서 평가기준으로 요구되는(김승재·오수일·김세환, 2003; 임수원, 2004)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의,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및 자료의 진실성 등의 기술에 대한 오류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질적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질적 연구 시 독자들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관광분야에서 바람직한 질적 연구의 방법적 체계를 확립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질적 연구방법론 평가기준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질적 연구방법론의 평가기준 연구를 국내외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외 연구로 Hoff & Witt(2000)는 1995-1997년 사이 9개 보건서비스 및 경영관련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들 학술지에서 나타난 질적 연구논문들의 방법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7개 논문 당 단 하나 정도의 논문이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9개 중 2개 학술지는 전체 논문 중 45%가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주요 목적은 기술로 나타났으며, 연구방법론 절차는 거의 혹은 전혀 기술되지 않았으며, 표준화된 논문의 페이지 수도 나타나지 않았다.

Weinter, Amick, Lund, Lee, & Hoff(2011)는 Hoff & Witt(2000)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1998-2008년 7개 보건서비스 및 경영관련 학술지를 대상으로 이들 학술지에서 나타난 질적 연구논문들의 방법론을 분석하였으며,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연구 설계, 연구방법의 세밀한 정도, 연구의 후원(funding) 원천, 페이지 수 등 6개의 분석유목으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 면접, 문서 등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논문들이 연구방법의 주요 포인트를 기술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Maxwell(2005)은 질적 설계모형을 목적, 이론적(개념적) 구조, 연구문제,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략과 방법, 타당성 등 다섯 가지 구성요소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한 전략과 방법으로 연구자는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대상자와의 관계, 자료수집 환경, 연구 대상자, 시간 및 장소의 선정과 문서와 같은 또 다른 자료 선정, 자료수집방법, 자료분석 전략과 기술의 네 가지 부분으로 세분하였다.

국내연구로 김승재 외(2003)는 스포츠교육학의 질적 연구 경향을 고찰하면서 질적 연구방법의 분석 기준으로 참여자, 피험자 선정, 연구 참여의 동의, 자료수집, 자료분석에 관한 기술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의 기술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술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는 유목적 표집(purposeful sampling) 혹은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표본추출을 하는 기준 표집(criterion sampling)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수집방법으로는 현장기록, 일지, 공식적·비공식적 면접, 문서 등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방법에서는 삼각 검증(triangulation),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동료 검증(peer examination)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수원(2004)은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게재 논문의 질적 연구방법을 분석하면서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연구 참여자 동의,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진실성 진술 등의 6가지 기준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많은 연구들에서 참여자 선정기준이나 이유에 대해 자세히 기술되지 않았으며, 연구 참여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거나 자료의 진실성에 관한 기술은 절반 정도가 기술되지 않는 등 질적 연구의 절차와 과정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스포츠사회학에서의 질적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도입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비해 천혜정(2004)은 연구의 철학적 배경, 연구목적(연구주제 및 목적,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자료수집 방법, 연구 참여 동의 기술), 자료분석 방법(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신뢰도 및 타당도)을 분석유목으로 가족학 분야 세계 학회지의 질적 연구동향과 방법론적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료수집 방법의 경우 심층면접이 대부분이었으나 피상적인 서술에 그치는 면이 있었으며,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자료는 대부분이 녹취된 내용을 전사한 필사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방법은 근거이론 접근법과 van Manen의 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에서는 1편을 제외한 26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볼 때 질적 연구방법론 분석의 공통된 항목들은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의 동의, 자료수집, 자료분석, 자료의 진실성(신뢰성 및 타당성)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각각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 참여자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수평적인 관계에서 연구를 함께 수행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 보다는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임수원, 2004). 연구 참여자 기술의 경우 질적 연구의 논리는 특정한 주제에 대해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지역, 환경, 경력, 배경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술은 독자가 연구가 진행된 환경 및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독자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user generalization)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임수원, 2004). 연구 참여자의 수와 관련해서 신경립(2000)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0명 내외로 이루어졌으며, 유정애(2004)는 15명-25명 사이를 제시하고 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질적 연구에 있어 연구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김윤옥 등, 2009). 질적 연구에서는 소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하지만 추출된 사례가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례 혹은 참여자를 선택한 동기나 절차를 심도 있게 기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인 표본을 선정하는 것은 양적 연구와 다르게 유목적 표본(purposeful sampling)이 될 수 있다. 즉, 유목적 표본은 특정한 사람이나 환경 또는 활동이 고의적으로 선정되는데, 이는 다른 선택을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거나 표본이 다른 사례들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하게 된다(이원옥, 2011). 유목적 표본전략에는 최대변량(maximum variation), 동질적(homogeneous), 결정적 사례(critical case), 이론 기반(theory based), 확증적/비확증적 사례들(confirming and disconfirming cases), 눈덩이 굴리기 또는 연쇄(chain), 극단적 또는 이탈적 사례(extreme or deviant case), 전형적 사례(typical case), 강도(intensity),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례들, 무작위 의도적(random purposeful), 층화된 의도적(stratified purposeful), 기준(criterion), 기회적(opportunistic), 조합 또는 혼합(combination or mixed), 편의(convenience) 표본추출 등이 있다(Miles & Huberman, 1994).

3. 연구 참여자 동의

질적 연구의 윤리문제 중 하나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 또는 권익보호 측면에서 연구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연구목적, 연구과정,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김

윤옥 등, 2009; 임수원, 2004). 이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처리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 가능한 자료의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승재 외, 2003).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목적과 그와 관련된 모든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승인했다는 점,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되게 된다(신경림, 2000).

4. 자료수집

질적 연구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가 수집된다. Merriam(1988)은 자료 수집 방법으로 면접, 관찰, 관련문서에서 얻은 질적인 자료를, Bodgan & Biklen(1992)은 면접, 현장기록(field note), 참여자와 관련된 각종 문서, 사진, 통계자료 및 그 외 수량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Creswell(1998)은 관찰, 면접, 문서, 시청각 자료를, Fraenkel & Wallen(1996)은 관찰과 면접을 제시하고 있다. Weinter *et al.*(2011)은 자료수집 방법으로 면접, 관찰, FGI, 현장조사(field work), 리포트, 메모, 안건, 의사록 등의 기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내 학자들의 경우 자료수집 방법으로 이용숙·김영천(1988)은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으로 참여관찰, 심층면접, 내용분석, 현장조사지를, 전형상·이철원(1998)은 인터뷰, 관찰, 개인기록(일기, 메모, 전자 우편물 등), 외적 기록물, 개인 파일, 사진 등을, 이원욱(2011)은 관찰, 인터뷰, 문서,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김윤옥 외(2009)은 자료수집 방법을 연구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여부에 따라 참여관찰, 포커스집단, 주요 정보자 면접, 생애사, 조사지 등의 상호작용적인 방법과 비참여관찰과 인공물(인류 고기물) 수집의 비상호작용적인 방법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5. 자료분석

질적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양적 연구와 달리 자료수집과 분석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으로 연구자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회귀적이며 반복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Stainback, 1988). 연구자는 자료를 검토한 후에 공통적인 요소를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추상화 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

정을 서술해야 한다.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주제적 분석(themantic analysis),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질문분석(question analysis) 등이 주로 쓰인다(전형상·이철원, 1998). 신경립(2000)은 주제별 분석법, 행간분석법, 의미론적 분석법, 내용분석법 등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손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램(Tlas, Ethno, Nudist 등)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조용환(2002)은 질적 자료에 따른 상이한 분석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관찰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행태분석, 네트워크 분석, 연극적 분석을, 면접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담론분석, 대화 분석, 사회언어학적 분석, 자전적 분석을, 문헌자료의 분석은 내용분석과 텍스트 분석을 제시하였다.

6. 자료의 진실성(신뢰성 및 타당성)

양적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에서도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성과 타당성 대신에 진실성(trustworthiness)이라는 용어가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다(유정애, 2004).

〈표 1〉 진실성의 평가 기준 및 구체적인 전략

기준	질적 연구	양적 연구	구체적인 전략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신빙성/진실성 (credibility)	내적 타당성 (internal validity)	오랜 연구기간(prolonged engagement), 다양한 분야의 경험, 지속적인 관찰, 시간표집(time sampling), 성찰(reflectivity), 현장일지, 삼각검증(triangulation)-자료, 방법, 조사자, 구성원 검토(member check), 동료 검증(peer briefing)의 사용, 면접기법, 구조적 일관성(structural coherence), 참고물의 적절성(referential adequacy), 부정적인 사례분석(negative case analysis)
적용성 (applicability)	대체가능성/ 전이가능성 (transferability)	외적 타당성 (external validity)	유목적 혹은 이론적 표집(purposive or theoretical sampling), 인구학적 자료를 위한 표집의 비교, 시간표집, 심층기술(thick description)
일관성 (consistency)	의존성/믿음성 (dependability)	신뢰도 (reliability)	의존성 검사(dependability audit), 연구방법의 밀도 있는 기술(dense description of research methods), 장기간 관여(prolonged engagement),

			순차적 반복(stepwise replication), 삼각검증, 구성원 검토, 부호-재부호화 과정(code-recode procedure), 자료 해석에 있어 제 2의 의견(auditor) 이용, 완벽한 신빙성의 형성(신빙성에 대한 재검사), 공정한 감사
중립성 (neutrality)	확실성/확증성 (confirmability)	객관성 (objectivity)	확실성 검사(confirmability audit), 삼각검증, 성찰, 외부 감사(external auditor), 지속적인 연구, 반성일지 작성
모든 기준 영역			성찰적 일기 쓰기(the reflective journal)

출처: Decrop, A.(2004).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tourism research. In Phillimore, J. & Goodson, L.(eds.). Qualitative research in tourism: ontologies, epistemologies and methodologies. New York: Routledge, 156-169. 노영구(2006). 여가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의 타당성.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4), 153-165. 신경림(1997). 질적 연구평가 기준. 대한간호학회지, 26(2): 497-506. 이종규(2007).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문화사, 116-117. 조재식·허창수·김영천(2006). 교육학/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는 타당도 이슈들: 그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교육과정연구, 24(1), 61-95. 를 참고로 논자 제작성.

이러한 질적 연구의 진실성 평가기준과 구체적인 전략은 <표 1>과 같다. Guba & Lincoln(1981)에 따르면 사실적 가치(신빙성)는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하며, 적용성(대체가능성)은 연구결과가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 밖에서도 적합한지 그리고 독자들이 연구결과를 읽고 자신들의 고유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의미 있고 응용력이 있는지를 의미한다. 일관성(의존성/믿음성)은 연구자에 의해서 사용된 분명한 자취를 다른 연구자가 따라갈 수 있을 때 혹은 더 나아가 다른 연구자가 연구자의 자료, 시각, 상황에 따라 전혀 모순되지 않은 똑같거나 비슷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중립성은 연구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모든 편견과 해방을 의미하며, 이는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이 확립될 때 얻어지게 된다.

III. 연구 설계

1. 분석자료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07년 2월(31권 1호)부터 2011년 12월(35권 10호)까지 한국관광학회 학술지인『관광학연구』에 게재된 총 734편의 논문 중 Fraenkel & Wallen(1996)이 제시한 면접과 관찰의 2가지 방법을 주

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작성한 38편(5.2%)의 논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면접은 심층면접,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일반면접 등을 포함한다. 편집인의 글, 연구노트, 서평, 설문조사를 위한 질적 연구 논문, 내용분석 논문 등은 제외되었다.

『관광학연구』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관광학연구』가 관광분야에서 2001년 처음으로 연구의 질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관광분야 대표 학술지로 선정되었고, 비교적 엄격한 논문심사절차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관광학연구』는 2007년 관광분야에서 처음으로 질적 연구논문 특별호를 발간한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질적 연구논문 특별호를 발간하는 유일한 학회지이며, 관광분야에서 대부분의 질적 연구논문들이 이 학회지에서 게재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분석 유목

연구의 내용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목적과 관련이 있는 변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유목체계이다(주재현, 2002). 이 연구의 유목체계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공통되게 사용되는(김승재 외, 2003; 임수원, 2004)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연구 참여자의 참여 동의, 자료수집 방법, 자료분석 방법, 자료의 진실성 진술 등 6개로 한정하였다(〈표 2〉). 이러한 항목들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분석표를 작성하여 각 논문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년도 순으로 나열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표 2〉 유목체계

대 유목	세부 유목	출처
연구 참여자 기술	연구 참여자 수 연구 참여자 기술 유무	노영구(2006), 김승재 외 (2003),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이유 기술 유무	(2003),
연구 참여자 동의	연구 참여자 동의 기술 유무	신경립(1997, 2000),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형태 자료기록 방법	이종규(2007), 임수원(2004),
자료분석 방법	근거이론 접근, 주제별 분석, 행간분석, 의미론적 분석, 내용분석 등	조재식 외 (2006),
자료의 진실성	신빙성, 대체가능성, 의존성/민음성, 확실성 등의 구체적인 전략	Decrop(2004)

3. 자료 분석

유목체계에 따라 분류된 자료는 내용분석법에 근거하여 SPSS WIN 15.0을 이용해 변수별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질적 논문들의 연도별 분포를 보면 2009년이 10편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 2010년(8편), 2007년, 2011년(7편), 2008년(6편) 순으로 나타났다(〈표 3〉). 연구주제에서는 마케팅이 19편(50.0%)으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인사 5편(13.2%), 정보 3편(7.9%)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산업분야에서는 관광분야가 15편(39.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컨벤션 6편(15.8%), 여가 5편(13.2%)로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분석대상 논문의 특성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주제 분야	마케팅	5(71.4)	2(33.3)	5(50.0)	3(37.5)	4(57.1)	19(50.0)
	인사	-	1(16.7)	2(20.0)	1(12.5)	1(14.3)	5(13.2)
	정보	1(14.3)	1(16.7)	1(10.0)	-	-	3(7.9)
	기타	1(14.3)	2(33.3)	2(20.0)	4(50.0)	2(28.6)	11(28.9)
관광 분야	관광	3(42.9)	3(50.0)	3(30.0)	3(37.5)	3(42.9)	15(39.5)
	컨벤션	2(28.6)	-	1(10.0)	2(25.0)	1(14.3)	6(15.8)
	여가	-	1(16.7)	1(10.0)	2(25.0)	1(14.3)	5(13.2)
	축제	1(14.3)	-	2(20.0)	-	-	3(7.9)
	여행	-	-	-	1(12.5)	1(14.3)	2(5.3)
산업 분야	호텔	1(14.3)	1(16.7)	-	-	-	2(5.3)
	외식	-	-	1(10.0)	-	1(14.3)	2(5.3)
	호텔외식여행항공	-	1(16.7)	-	-	-	1(2.6)
	항공	-	-	1(10.0)	-	-	1(2.6)
	호텔+외식	-	-	1(10.0)	-	-	1(2.6)
합계		7(100.0)	6(100.0)	10(100.0)	8(100.0)	7(100.0)	38(100.0)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의 수를 기술한 논문비율은 32편(86.8%)이며, 기술하지 않은 비율은 5편(13.2%)으로 나타났다(〈표 4〉). 연구 참여자의 평균 숫자는 17.1명이었으며, 2009년에 19.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기술여부에서는 30편(78.9%)이 기술을 하고 있으며, 8편(21.1%)이 기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년도 별로 살펴보면 2007년 논문 중 5편(71.4%)이 연구 참여자를 기술하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모두 기술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 참여자를 기술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4〉 연구 참여자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연구 참여자 수	기술	5(71.4)	5(83.3)	9(90.0)	7(87.5)	7(100.0)	32(86.8)
	기술 없음	2(28.6)	1(16.7)	1(10.0)	1(12.5)	-	5(13.2)
	평균	17명	12.8명	19.6명	14.3명	16.7명	17.1명
연구 참여자 기술 유무	기술	3(42.9)	5(83.3)	8(80.0)	7(87.5)	7(100.0)	30(78.9)
	기술 없음	4(57.1)	1(16.7)	2(20.0)	1(12.5)	-	8(21.1)
합계		7(100.0)	6(100.0)	10(100.0)	8(100.0)	7(100.0)	38(100.0)

3.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에서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자의 연구문제나 이론적 입장과 분석틀, 실행할 분석방법, 도출해 내고자 하는 설명을 염두에 두고 탐구할 집단이나 범주를 선택하는 유목적 표집이 7편(18.4%)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눈덩이 표집(5편, 13.2%), 기준 표집 및 이론적 표집(각각 3편, 7.9%) 순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눈덩이 표집, 기준 표집, 이론적 표집 등이 유목적 표집의 한 종류이므로 이를 모두 합한다면 유목적 표집은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50%가 된다. 전체 논문 중 17편(44.7%)은 참여자 표집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참여자의 선정기준이나 선정이유에 대한 기술을 보면 38편 중 16편(39%)만이 어떤 기준에서 또는 무엇 때문에 특정 대상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있으며, 25편(61%)은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이유를 기술하지 않는 연도별 비율도 최소 50%를 넘고 있으며, 해마다 등락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연구 참여자 표집	유목적 표집	2(28.6)	1(16.7)	2(20.0)	2(25.0)	-	7(18.4)
	눈덩이 표집	1(14.3)	1(16.7)	1(10.0)	1(12.5)	1(14.3)	5(13.2)
	기준 표집	-	1(16.7)	1(10.0)	-	1(14.3)	3(7.9)
	이론적 표집	-	-	1(10.0)	1(12.5)	1(14.3)	3(7.9)
	공모표집	-	-	2(20.0)	-	-	2(5.3)
	기술 없음	4(57.2)	3(50.0)	3(30.0)	4(50.0)	4(57.1)	17(44.7)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 및 이유	기술	4(57.1)	3(50.0)	7(70.0)	3(37.5)	5(71.4)	22(57.9)
	기술 없음	3(42.9)	3(50.0)	3(30.0)	5(62.5)	2(28.6)	16(42.1)
합계		7(100.0)	6(100.0)	10(100.0)	8(100.0)	7(100.0)	38(100.0)

4. 연구 참여자 동의

전체 38편의 논문 중 단지 2편(4.9%)만의 연구 참여자 동의에 관한 문제를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다시 말해 대부분의 연구가 참여자의 사생활이나 권익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연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록 일부 연구들이 이메일, 전화, 지인 등을 통해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참여자 동의에 관한 명확한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 전체 논문 중 어느 한 편도 사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는 기술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연구 참여자 동의

년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연구 참여자	기술	2(28.6)	-	-	-	-	2(5.3)
동의 기술유무	기술 없음	5(71.4)	6(100.0)	10(100.0)	8(100.0)	7(100.0)	36(94.7)
합계		7(100.0)	6(100.0)	10(100.0)	8(100.0)	7(100.0)	38(100.0)

5. 자료수집 방법

1)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으로 관찰조사를 주로 사용한 경우 관찰만으로 연구된 논문은 3편(7.9%)이었으며, 관찰과 면접 혹은 관찰과 전화인터뷰를 같이 실시한 논문은 7편(18.4%)로 나타났다(〈표 7〉). 면접의 경우 심층면접만으로 연구되는 논문은

16편(42.1)으로 가장 많았고, 심층면접과 FGI, 델파이 등 다른 방법과 같이 실시된 논문은 3편(7.8%)으로 분석되었다. 정리해보면 자료수집 방법 전체적으로 볼 때 심층면접만으로 실시된 연구가 16편(4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찰과 면접을 동시에 실시한 연구 7편(18.4%), FGI 5편(13.2%), 일반면접 4편(10.5%) 순으로 나타났다.

〈표 7〉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관찰	관찰	1(14.3)	-	1(10.0)	-	1(14.3)	3(7.9)
	관찰 + 면접	2(28.6)	1(16.7)	2(20.0)	1(12.5)	1(14.3)	7(18.4)
	소계	3(42.9)	1(16.7)	3(30.0)	1(12.5)	2(28.6)	10(26.3)
심층 면접	심층면접	3(42.9)	4(66.7)	3(30.0)	3(37.5)	3(42.9)	16(42.1)
	심층면접 + FGI	-	-	-	-	1(14.3)	1(2.6)
	심층면접 + 일반면접	-	-	1(10.0)	-	-	1(2.6)
	심층면접 + 일지	-	-	1(10.0)	-	-	1(2.6)
	소계	3(42.9)	4(66.7)	5(50.0)	3(37.5)	4(57.2)	19(50.0)
FGI	소계	1(14.3)	1(16.7)	1(10.0)	1(12.5)	1(14.3)	5(13.2)
일반면접	소계	-	-	2(16.7)	2(25.0)	-	4(10.5)
합계		7(100.0)	6(100.0)	10(100.0)	8(100.0)	7(100.0)	38(100.0)

2) 자료수집 형태 및 기록방법

자료수집 형태와 기록방법을 분석한 결과, 관찰방법에서는 관찰형태를 기술하지 않은 논문이 전체의 8편(80%)이었으며, 단지 2편(20%)의 논문만이 완전한 관찰자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었다(〈표 8〉). 관찰기록방법은 관찰노트, 비디오 녹화, 기타 등으로 5편(50%)만이 기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5편(50%)은 관찰기록방법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기간은 분석대상 논문 중 6편(60%)이 10일 이내로 나타났으며, 관찰기간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도 2편(20%)로 나타났다. 관찰 횟수의 경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성호(2009)의 5회와 허문경(2010)의 2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찰 횟수를 기술하지 않아 1회의 관찰을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심층면접에서는 반구조화된 면접이 7편(23.3%), 비구조화된 면접이 5편(16.7%)으로 나타났으며, 면접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논문은 17편(56.7%)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기록방법에서는 녹취가 12편(40.0%), 녹취 + 기록이 5편(16.7%)으로 나타났으나 12편(40.0%)은 아무런 기술이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심층면접시간은 분석대상 논문 중 10편(33.3%)만이 그 기간을 밝히고 있으며, 20편(66.7%)은 심층면접시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층면접시간은 모두 2시간 이내로, 2시간 4편, 1-2시간 2편 순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횟수는 손해경(2009)의 2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횟수를 기술하지 않아 1회의 심층면접을 시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면접이나 FGI의 경우도 5편(83.3%)과 2편(33.3%)의 연구가 면접형태를 기술하지 않고 있으며, 기록방법 역시 각각 3편(50.0%)과 2편(33.3%)의 연구가 기록방법을 기술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자료수집 형태*

자료수집 형태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관찰 형태	완전한 관찰자	1(33.3)	-	-	-	1(50.0)	2(20.0)
	구체적 기술 없음	2(66.7)	1(100.0)	3(100.0)	1(100.0)	1(50.0)	8(80.0)
	합계	3(30.00)	1(10.0)	3(30.0)	1(10.0)	2(20.0)	10(100.0)
관찰 기록 방법	관찰노트	1(33.3)	1(100.0)	-	-	-	2(20.0)
	비디오녹화	-	-	-	-	1(50.0)	1(10.0)
	기타	-	-	-	1(100.0)	1(50.0)	2(20.0)
관찰 기간	구체적 기술 없음	2(66.7)	-	3(100.0)	-	-	5(50.0)
	합계	3(30.0)	1(10.0)	3(30.0)	1(00.0)	2(20.0)	10(100.0)
	1시간 내외	1(33.3)	-	-	-	-	1(10.0)
관찰 기간	2일	-	-	1(33.3)	-	-	1(10.0)
	3일	-	-	-	1(100.0)	-	1(10.0)
	3박 4일	-	1(100.0)	-	-	-	1(10.0)
	5일	-	-	1(33.3)	-	-	1(10.0)
	10일	-	-	-	-	1(50.0)	1(10.0)
	2달	-	-	-	-	1(50.0)	1(10.0)
	6년	1(33.3)	-	-	-	-	1(10.0)
	기술 없음	1(33.3)	-	1(33.3)	-	-	2(20.0)
합계	3(30.0)	1(10.0)	3(30.0)	1(10.0)	2(20.0)	10(100.0)	
심층 면접 형태	구조화된 면접	-	1(20.0)	-	-	-	1(3.3)
	반구조화된 면접	1(20.0)	1(20.0)	1(12.5)	3(42.9)	1(20.0)	7(23.3)
	비구조화된 면접	2(40.0)	-	-	1(14.3)	2(40.0)	5(16.7)
	구체적 기술 없음	2(40.0)	3(60.0)	7(87.5)	3(42.9)	2(40.0)	17(56.7)
	합계	5(16.7)	5(16.7)	8(26.7)	7(23.3)	5(16.7)	30(100.0)
심층 면접 방법	녹취	2(40.0)	1(20.0)	2(25.0)	3(75.0)	3(60.0)	12(40.0)
	기록	-	1(20.0)	-	-	-	1(3.3)
	녹취+기록	1(20.0)	2(40.0)	2(25.0)	-	-	5(16.7)
	(메모, 필드노트 등) 구체적 기술 없음	1(20.0)	1(20.0)	4(50.0)	3(42.9)	2(40.0)	12(40.0)
합계	5(16.7)	5(16.7)	8(26.7)	7(23.3)	5(16.7)	30(100.0)	
심층 면접 시간	40분-1시간 반	-	-	1(12.5)	-	-	1(3.3)
	1-1.5시간	-	-	1(12.5)	-	-	1(3.3)
	1-2시간	-	-	-	1(14.3)	1(20.0)	2(6.7)

	1-2.5시간	-	-	1(12.5)	-	-	1(3.3)	
	1.5-2시간	1(20.0)	-	-	-	-	1(3.3)	
	2시간	2(40.0)	-	1(12.5)	-	1(20.0)	4(13.3)	
	구체적 기술 없음	2(40.0)	5(100.0)	4(50.0)	6(85.7)	3(60.0)	20(66.7)	
	합계	5(16.7)	5(16.7)	8(26.7)	7(23.3)	5(16.7)	30(100.0)	
일반 면접	면접 형태	반 구조화된 면접	-	-	-	1(50.0)	-	1(16.7)
		구체적 기술 없음	2(100.0)	-	-	1(50.0)	-	5(83.3)
		합계	2(33.3)	-	2(33.3)	2(33.3)	-	6(100.0)
	면접 기록 방법	녹취	-	-	1(50.0)	1(50.0)	-	2(33.3)
		영상촬영	1(50.0)	-	-	-	-	1(14.3)
		구체적 기술 없음	1(50.0)	-	1(50.0)	1(50.0)	-	3(50.0)
	합계	2(33.3)	-	2(33.3)	2(33.3)	-	6(100.0)	
FGI	면접 형태	반구조화된 면접	1(100.0)	-	-	1(100.0)	1(50.0)	3(50.0)
		비구조화된 면접	-	1(100.0)	-	-	-	1(16.7)
		구체적 기술 없음	-	-	1(100.0)	-	1(50.0)	2(33.3)
		합계	1(16.7)	1(16.7)	1(16.7)	1(16.7)	2(33.3)	6(100.0)
	FGI 기록 방법	녹취	-	1(100.0)	-	1(100.0)	1(50.0)	3(50.0)
		FGI 녹취 + 기록(메모, 필드노트 등)	1(100.0)	-	-	-	-	1(16.7)
	구체적 기술 없음	-	-	1(100.0)	-	1(50.0)	2(33.3)	
	합계	1(16.7)	1(16.7)	1(16.7)	1(16.7)	2(33.3)	6(100.0)	

* 자료수집 방법은 일부 연구에 여러 방법이 사용된 경우가 있어 총합계가 38을 넘음.

6. 자료분석 방법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어떤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자료의 속성, 즉 관찰 혹은 면접 자료인지에 따라 적합한 분석기법이 달라진다.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근거이론 접근방식이 9편(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용분석 6편(15.8%), 주제별 분석과 의미론적 분석이 각각 3편(7.9%) 순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9〉). 또한 16편(42.1%)은 자료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자료분석 방법

자료분석 방법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근거이론	-	1(16.7)	2(20.0)	3(37.5)	3(42.9)	9(23.7)
내용분석	-	4(66.7)	1(10.0)	-	1(14.3)	6(15.8)
주제별 분석	3(42.9)	-	-	-	-	3(7.9)
의미론적 분석	-	1(16.7)	1(10.0)	1(12.5)	-	3(7.9)
관찰빈도 분석	1(14.3)	-	-	-	-	1(2.6)
구체적 기술 없음	3(42.9)	-	6(60.0)	4(50.0)	3(42.9)	16(42.1)
합계	7(18.4)	6(15.8)	10(26.3)	8(21.1)	7(18.4)	38(100.0)

7. 자료의 진실성(신뢰성 및 타당성)

자료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실적 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 방법이 5편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가 의견/검증/회의, 구성원 검토, 삼각검증이 각각 2편(5.39%)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타 방법들은 각각 1편(2.6%)로 나타났다(표 10).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기술이 없는 논문은 23편(60.5%)으로 분석되었다.

〈표 10〉 자료의 진실성 기술

진실성 검증 방법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	-	1(16.7)	2(20.0)	-	1(14.3)	5(13.2)
전문가 의견 (자문, 검증, 회의)	1(14.3)	-	-	1(12.5)	-	2(5.3)
구성원 검토	1(14.3)	1(16.7)	-	-	-	2(5.3)
삼각검증	-	-	1(10.0)	-	1(14.3)	2(5.3)
전문가의견+문항내적 일치도, 검사재검사	1(14.3)	-	-	-	-	1(2.6)
현장기록물(녹음기, 카메라, 현장노트)	-	-	-	-	1(14.3)	1(2.6)
면접 당일 정리 신빙성, 부합성, 감사성+삼각검증+구성원 검토	-	-	1(10.0)	-	-	1(2.6)
연구자 협의	-	-	-	1(12.5)	-	1(2.6)
구체적 기술 없음	4(57.1)	4(66.7)	6(60.0%)	5(62.5)	4(57.1)	23(60.5)
합계	7(18.4)	6(15.8)	10(26.3)	8(19.5)	7(18.4)	38(100.0)

V. 결 론

이 연구는 관광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방법론의 체계성을 알아보기 위해 그간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질적 연구방법의 과정이나 절차에서 나타나는 연구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요약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질적 논문들의 연구주제 영역에서는 마케팅이, 연구대상 산업에서는 관광분야가 제일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주제가 마케팅 영역이 많았다는 결과는

관광학술지를 내용분석한 박호표(1999)와 최규환(200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질적 연구에서도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마케팅관련 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참여자의 수를 기술한 논문 비율은 86.8%이며, 연구 참여자의 수는 평균 17.1명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 기술여부에서는 분석대상 전체 논문 중 78.9%가 연구 참여자를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연구 참여자를 기술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 참여자 기술 비율이 점차 높아진다는 결과는 질적 연구 측면에서 보면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김민주·박진경(2010) 등 일부 연구를 제외하고는 많은 연구들에서 연구 참여자 기술의 경우 이들의 직업 등 기본적인 정보만을 제공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 중 21.1%는 연구 참여자를 전혀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독자가 연구 환경이나 결과를 이해함으로써 자신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독자에 따른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임수원, 2004)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연구는 특정 주제를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참여자에 대한 지역, 환경, 경력, 배경 등의 정보를 상세히 기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참여자 선정방법은 유목적 표집(눈덩이 표집, 기준 표집/이론적 표집 등 포함)이 전체 분석대상 논문의 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선정기준이나 선정이유에 대한 기술에서는 분석대상 논문 중 57.9%가 그 기준과 이유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이 연구 주제관련 경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라는 식의 너무 광범위한 기준도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대상 논문 중 42.1%는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이나 이유를 전혀 기술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연구는 연구 참여자를 선택한 동기나 절차를 심도 있게 기술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참여자 선정과정의 연구의 목적에 잘 부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분석대상 논문 중 단지 5.3%만의 연구가 연구 참여자 동의에 관한 문제를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일부 연구들이 이메일, 전화, 지인 등을 통해 참여자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참여자 동의에 관한 명확한 기술은 없었으며, 분석대상 전체 논문 중 어느 한 편도 사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연구동의를 받은다는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동의 문제는 질적 연구의 윤리문제 중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

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반드시 참여자가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을 동의하는 과정을 거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을 연구내용에 명확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자는 신경림(2000)의 제안처럼 연구 참여자가 연구목적과 그와 관련된 모든 위험성을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연구에 참여하기로 승인했다는 점, 익명성이 보장되고, 연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 결과가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그만 둘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사전에 공지하고 연구 동의서를 구한 후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면접(심층면접, FGI, 일반면접)이 주요 자료수집 방법으로 사용된 연구의 비율이 73.7%이며, 관찰은 26.3%로 나타나 관찰보다 면접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면접의 유형 중 심층면접이 사용된 경우는 42.1%로 제일 많이 나타났다. 자료수집 및 기록방법 등 자료수집 형태 분석결과에서는 면접과 관찰에서 이러한 기술을 하지 않은 비율이 33.3%~83.3%로 나타났다. 관찰기간의 경우 분석대상 논문 중 60%의 논문이 10일 이내로 한성호(2009)의 5회와 허문경(2010)의 2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회의 관찰을 하고 있었으며, 심층면접시간은 66.7%가 기술하지 않았으며, 33.3%만이 면접시간을 기술했는데 2시간 이내였으며, 면접 횟수에서는 손해경(2009)의 2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회로 나타났다.

조용환(20002)은 질적 연구 중 관찰의 경우 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1년 이상의 현지 참여관찰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비록 인류학처럼 연구자가 현지 참여관찰기간을 장기간으로 잡을 수는 없더라도 국내 관광분야의 질적 연구는 연구자들이 대부분 제한된 시간 내에 논문을 써야 하는 어려움으로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심층면접의 경우도 대부분 1회 2시간 이내, 반구조화 방법이 많고, 2차 면접을 한 경우도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질문을 하기 위한 정도여서 과연 이러한 방식이 연구 참여자의 생각을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심층면접인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중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를 연구 시작 전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관찰을 했다면 완전참여관찰, 관찰자로서의 참여자, 참여자로서의 관찰자, 완전한 관찰자 중 어떤 관찰의 형태로 얼마 동안 관찰했으며, 관찰내용은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반드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심층면접 기술 역시 구조화, 반구조화, 비구조화방식 등 어떤 방식의 면접을 했으며, 몇 번의 면접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면접관련 정보

(연구 참여자의 모집 과정과 이들과의 공감대(rapport) 형성, 면접 장소의 분위기, 면접 내용 등)는 어떠했는지, 면접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줄 필요가 있다 하겠다.

여섯째, 자료분석 방법으로는 근거이론이 2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내용분석, 주제별 분석, 의미론적 분석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거이론이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으로 연결되는 체계적인 분석절차 과정이 있는 비교적 구조적인 접근이라 양적 연구에 익숙한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에 접근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논문의 42.1%는 자료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위논문이 아닌 학술지 논문이라도 자료분석 방법은 함축적으로 간단명료하게 기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료의 진실성 기술에서는 사실적 가치/적용성/일관성/중립성 방법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가 의견/검증/회의, 구성원 검토, 삼각 검증 순으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진실성 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한 김길래·정소연(2009), 김수진·이진형(2009) 등 몇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4개의 진실성 기준 중 일부만 내지는 단순히 진실성을 체크했다고만 기술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기술이 없는 논문도 전체의 60.5%로 나타났다.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나타내는 자료의 진실성은 양적 연구와 마찬가지로 질적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표 1>의 진실성 평가기준 및 구체적인 전략을 참고하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향후 관광분야에서의 질적 연구는 독자가 연구 환경이나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기술해야 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양적 연구에 대비되는 질적 연구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 학교, 학회 측면에서 생각해봐야 할 시사점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자는 질적 연구를 너무 쉽게 여기거나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질적 연구 강좌나 워크숍, 세미나에 참가하여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관광분야 이외에 다른 분야에서 연구된 질적 논문들을 많이 읽고, 비평을 해봄으로써 질적 연구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본인들의 질적 연구시 연구과정을 심층적으로 기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학계에서는 질적 연구에 대한 교수들 간의 콜로키움 형태의 모임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모임은 대학원생들에게도 질적 연구에 대한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초를 바탕으로 학계는 대학원에 질적 연구 패러다임의 학문적 기초와 필수 연구방법론 강좌를 개설하거나 미국 조지아 대학(University of Georgia)과 같이 질적 연구 자격증 제도를 개설, 운영(노진아·이윤숙·강미애·박동환·이유리, 2011)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회측면에서는 학술발표대회의 특별 세션이나 연구포럼 형식으로 정기적으로 질적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방법 세미나나 워크숍을 개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문화인류학, 심리학, 교육학, 간호학 등 다른 분야의 질적 연구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학회 회원들에게 질적 연구에 대한 내용과 조언들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현재 한국관광학회에서 이러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연구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와 더불어 현재 『관광학연구』지의 심사양식을 질적 연구의 경우 양적 연구의 심사양식과 다르게 만들어보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 연구는 그간 관광분야에서 연구방법 측면에서 대세였던 양적 연구에 대한 보완으로 지난 몇 년 사이에 질적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나 기존 질적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질적 연구방법론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비록 질적 연구에서 연구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체계(혹은 객관적 지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그러한 표준화된 체계를 잘 갖춘 논문은 좋은 연구이고 그렇지 않은 논문은 좋지 않은 연구라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연구는 양적 연구에 대한 반향으로 단순히 질적 연구를 많이 하자는 관점을 뛰어 넘어 현재 관광분야 질적 논문의 연구방법론을 탐색적이지만 체계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관광분야에서의 질적 연구의 연구방법론상의 방향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면접, 관찰, 현장조사지, 일기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 중 면접과 관찰방법만을 사용한 연구들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 또한 이 연구는 연구범위로 질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관광학회의 학술지인 『관광학연구』에 게재된 논문만으로 한정했지만 관광분야의 다른 학술지에도 질적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분석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요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의 연구 동역서 기술의 경우 연구 윤리와 관련된 측면이 많아 이러한 부분이 과연 질적 연구방법체계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연구자의 윤리 의식향상을 위한 제언 정도로 그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관광분야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대상으로 면접, 관찰, 현장 조사지, 일기와 같은 개인 기록, 각종 사진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들을 사용한 질적 연구들의 방법론을 분석하거나 동일 주제를 가진 연구들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과 관점의 비교가 이루어진다면 한다. 이와 더불어 향후 연구는 연구 기간을 자료수집 전 단계(연구 계획 수립, 연구 참여자와 친밀감 형성, 자료수집 계획 작성 등), 자료 수집 단계(면접 및 관찰 횟수, 시간, 문서자료 획득 기간 등), 자료 수집 후 단계(자료 정리 및 분석, 진실성 확보 등)로 나누어 질적 연구들을 분석해 본다면 관광분야에서 보다 일반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의 동향 및 보완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길래·김충영(2007). 국내 컨벤션 전담조직의 eDMS도입에 관한 탐색적 연구: 협력적 네트워크 시스템(컨벤션 포탈)의 수용관점에서. 『관광학연구』, 31(6), 221-245.
- 김길래·정소연(2009). 컨벤션 정보포탈을 이용한 정보수집 과정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적 접근방법으로. 『관광학연구』, 33(3), 267-285.
- 김미옥·김민주(2011). 조선족 결혼이주여성의 여가욕구 및 여가행태. 『관광학연구』, 35(10), 97-120.
- 김민주·박진경(2010). 국외여행인솔자의 리더십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4(1), 213-235
- 김사현(2007). 관광학 연구에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론의 상황과 도전: 관광학회지 논문의 메타분석. 『관광학연구』, 31(1), 13-32.
- 김수진·이진형(2009). 항공사 객실승무원의 채용, 교육훈련 및 비행과정과 정서노동: 정서노동 영역과 과정의 확장. 『관광학연구』, 33(4), 469-488.
- 김승재·오수일·김세환(2003). 스포츠교육학의 질적 연구 경향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4), 289-299.
- 김윤옥·박성미·박소영·손미·신경숙·이은화·정명화·허승희·황희숙(2009). 『질적 연구 실천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 김철원·김연선(2007). 호텔 브랜드 자산 가치 공유개념도. 『관광학연구』, 31(5), 157-179.
- 김철원·윤혜진(2009). 관광현상 규명을 위한 질적 연구방법의 고찰과 적용. 『관광학연구』, 33(1), 11-30.
- 김철원·이태숙(2007). 컨벤션 개최지의 브랜드 개성 측정항목 개발: 은유유도기법의 적

용. 『관광학연구』, 31(1), 99-116.

- 노용구(2006). 여가 연구에 있어 질적 연구의 타당성.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4), 153-165.
- 노진아·이윤숙·강미애·박동환·이유리(2011). 유아특수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동향 분석: 2000년부터 2010년까지의 국내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특수교육』, 10(1), 305-328.
- 류시영·엄서호(2008). CIT를 이용한 농촌관광의 만족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부래미 마을 방문객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14(3), 11-17.
- 박호표(1999). 한국과 외국의 관광학연구 동향에 관한 비교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8(1), 243-269.
- 손해경(2009). 개인성격 특성과 서비스 상화작용 유형에 따른 정서노동 결과에 관한 연구: 특1급 호텔 레스토랑과 패밀리 레스토랑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33(2), 245-265.
- 손해경(2011). 인바운드 중국인의 쇼핑관광경험에 관한 탐색 연구: 한국관광에서 쇼핑은 계획적인가 충동적인가. 『관광학연구』, 35(4), 113-135.
- 송영민(2010). 근거이론을 이용한 자전거 관광객의 경험분석. 『관광학연구』, 34(1), 155-177.
- 신경립(1997). 질적 연구평가 기준. 『대한간호학회지』, 26(2), 497-506.
- _____ (2000).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한 논문계획서 작성법. 『질적 연구』, 1(1), 165-171.
- 유정애(2004). 『체육학에서 질적 연구 논문작성법』. 서울: 도서출판 무지개사.
- 이용숙·김영천(1998). 『교육에서의 질적 연구』. 서울: 과학교육사.
- 이원욱(2011). 『연구조사방법의 이해와 적용: 질적 연구와 사례 연구 방법』. 서울: 형설출판사.
- 이종규(2007).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문화사.
- 이진형(2008). 여행하는 노동자: 태국 현지가이드의 일과 삶에 대한 탐색. 『관광학연구』, 32(6), 35-58.
- 이훈·황희정(2008). 노인의 여가경험 분석. 『관광학연구』, 32(6), 317-338.
- 임수원(2004). 한국 스포츠사회학회지 게재 논문의 질적 연구방법 분석.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7(3), 253-267.
- 전형상·이철원(1998). 여가 레크리에이션 연구의 질적 방법론에 대한 논의: 여가 사회학의 새로운 연구 방법론을 위하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15, 149-163.
- 정란수·최인호·송영민(2008). 뉴질랜드 i-Site 사례를 통한 관광안내소 브랜드화. 『호텔관광연구』, 10(3), 52-67.
- 조용환(2002).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재식·허창수·김영천(2006). 교육학/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 연구자가 고려해야 하

- 는 타당도 이슈들: 그 다양한 접근들의 이해. 『교육과정연구』, 24(1), 61-95.
- 주재현(2002). 내용분석 방법의 수행절차 및 적용 연구사례 분석. 『정부행정』, 3, 29-55.
- 천혜정(2004). 가족학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경향 및 방법론적 문제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161-173.
- 최규환(2003). 관광학술지 연구논문에 관한 내용분석: 「관광·레저연구」 학술지를 대상으로. 『관광·레저연구』, 15(1), 11-29.
- 한범수·김사현(1999). 관광학 연구논문의 조사설계방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관광학회 간행 『관광학연구』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25(2), 13-33.
- 한성호(2009). 축제관광객의 유형세분화와 SWOT분석을 이용한 운영전략: 영국의 브라이트튼 축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1), 365-380.
- 허문경(2010). 근거이론으로 분석한 창조도시 전주에서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관광을 바라보는 시선. 『관광학연구』, 34(6), 85-104.
- 황수영(2009). 델파이기법을 이용한 '관광산업의 e-CRM활동 척도' 개발: 여행, 호텔, 항공, 외식업을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3(5), 453-475.
- 황수영·김성혁(2008). 여행, 호텔, 항공, 외식업의 e-CRM 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관광학연구』, 32(6), 383-403.
- Bodgan, R. C., & Biklen, S. K.(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methods*. 2nd eds., Boston: Allyn Bacon.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조홍식·정선욱·김진숙·권지성 공역(200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전통. 서울: 학지사.
- Decrop, A.(2004).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tourism research. In Phillimore, J. & Goodson, L.(eds.). *Qualitative research in tourism: ontologies, epistemologies and methodologies*. New York: Routledge, 156-169.
- Fraenkel, J. R., & Wallen, N. E.(1996). *How to design and evaluate research in education*. 3rd eds., NY: McGraw Hill, Inc.
- Guba, E. G., & Lincoln, Y. S.(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 Hoff, T. J., & Witt, L. C.(2000). Exploring the use of qualitative methods in published health services and management research.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57(2), 139-169.
- Howe, K., & Eisenhardt, M(1990). Standards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A prolegomenon. *Educational Researcher*, 19(4), 2-9.

- Jennings, G., & Junek, O.(2007). Grounded theory: Innovative methodology or a critical turning from hegemonic methodological praxis in tourism studies. *The Critical Turn in Tourism Studies*. 12, 197-210.
- Maxwell, J. A.(2005).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2nd eds., Thousand Oaks, CA: Sage.
- Mehmetoglu, M., & Altinay, L.(2006). Examination of grounded theory analysis with an application to hospitality research. *International Journal of Hospitality Management*, 25(1), 12-33.
- Merriam, S.(198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San Francisco: Jossey-Bass.
- Miles, M. B., & Huberman, A. M.(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A sourcebook of new methods*. 2nd eds.. Thousand Oaks, CA: Sage.
- Phillimore, J., & Goodson, L.(2004). *Qualitative research in tourism: Ontologies, epistemologies*. London: Routledge.
- Riley, R. W., & Love, L. L.(2000). The state of qualitative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7(1), 164-187.
- Stainback, S. B.(1988) 저, 김병하 역(2000). 『질적 연구의 이해와 실천』.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Weed, M.(2009). Research quality considerations for grounded theory research in sport & exercise psychology. *Psychology of Sport and Exercise*, 10(5), 502-510.
- Weinter, B. J., Amick, H. R., Lund, J. L., Lee, S. D., & Hoff, T. J.(2011). Use of qualitative methods in published health services and management research: A 10-year review. *Medical Care Research and Review*, 68(1), 3-33.

2012년 7월 12일 최초투고논문 접수

2012년 8월 30일 최종심사완료 및 게재확정 통보

2012년 10월 10일 최종논문 도착

3인 익명심사 畢